



KBS 상세 분석

2026-04-28__풀영상_ 뉴스9 - 김건희 항소심_ 징역 4년_ 벌금 5천만 원_ 주가조작_ 샤넬 가방 수수
유죄_

방송: 2026-04-28 | 분석일: 2026-05-13 12:31

Version 2.8-detail | Universal 2.8-detail | Konverter 3.5 (2026-05-29) | 기준: 방송법 제6조

종합 점수

5.8/10

상당한 불균형

0 = 균형, 10 = 강한 편향/조작적

정치 스펙트럼

채플힐 전문가 조사 (CHES) 2024 기반 분류

채플힐 전문가 조사(CHES 2024)는 31개국 609명의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 조사입니다. 각 정당은 0(극좌)에서 10(극우)까지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정당	JP	RKP	DPK	RP	PPP
CHES	2.00	3.50	4.50	6.50	7.50
스펙트럼	좌파	좌파	중도	우파	우파

전체 경향은 0-10 척도로 표시됩니다 (0 = 강한 좌파 우대, 5 = 균형, 10 = 강한 우파 우대). 계산은 좌파와 우파 정당의 평균 우대 차이에 기반합니다 (CHES 2024에 따른 그룹화).

경향 (좌 - 우)

3.2 / 10

좌파 편향

0 1 2 3 4 5 6 7 8 9 10

← 좌파

우파 →

출처: Chapel Hill Expert Survey 2024 — chesdata.eu | [Jolly et al., Electoral Studies, 2022](#) | 임계값: [Pew Research Center](#)

이 섹션은 정치적 맥락을 제공하며 종합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정치적 지형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으로 전략한 상태다. 국회는 민주당이 약 162석으로 과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진보 블록과 연대하면 압도적 다수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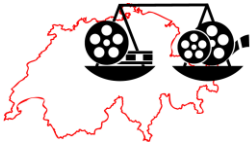
정당	CHES 좌우 점수	의석 수	여당/야당	핵심 입장
더불어민주당 (DP)	4.5 (중도-좌)	약 162	여당	대화 외교, 검찰개혁, 복지 확대
국민의힘 (PPP)	7.5 (우파)	약 107	야당	한미동맹 강화, 대북 강경, 규제 완화
조국혁신당 (RKP)	3.5 (좌파)	12	야당(진보)	검찰개혁, 미디어 독립
진보당 (JP)	2.0 (극좌)	4	야당(진보)	반미군사, 노동권, 통일
개혁신당 (RP)	6.5 (중도-우)	3	야당(보수)	친시장, 세대정의, 반PPP권위주의

한국 정치의 핵심 갈등은 윤석열 탄핵 이후 검찰 권력 재편, 대북 정책 방향, 한미동맹의 성격 규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대북 송금 의혹 등)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청년·소상공인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지역 중심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유죄 판결은 전직 대통령 부인의 사법 처리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정치적 파장이 크다.

KBS와 MBC는 방송법 제6조에 따라 공정성·공익성 의무를 지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이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권 교체 때마다 편향 논란이 반복된다. 2025년 민주당 방송법 개정으로 KBS·MBC 이사회가 확대되어 현 집권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된 상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1 — 정당 정치적 편향

정당별 프로그램 입장 정확성 평가

정당	점수 (-5~+5)	방송 표현 vs. 강령 입장
더불어민주당 (DP)	+2	28:5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청년과 소상공인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 강령 입장: 복지 확대, 소상공인 지원 — 정확하게 표현됨. 그러나 검찰개혁 입장은 '공작 확인'이라는 민주당 자체 주장으로만 전달되어 비판적 검토 없음.
국민의힘 (PPP)	-2	29:45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자 허위선동으로 갈등만 키운다고 견제도 있지 않았습니다" — 강령 입장: 경제 자유화, 규제 완화, 강한 안보 — 민주당의 공격 발언만 인용하고 PPP 자체 정책 입장은 거의 전달하지 않음. 당내 갈등(지도부 거리두기) 중심 보도로 PPP 강령 입장이 왜곡됨.
조국혁신당 (RKP)	0	방송에서 직접 언급 없음 — 강령 입장: 검찰개혁, 미디어 독립 — 해당 없음.
진보당 (JP)	0	방송에서 직접 언급 없음 — 강령 입장: 노동권, 통일 — 해당 없음.
개혁신당 (RP)	0	32:01 "개혁신당에선 조천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강령 입장: 친시장, 세대정의 — 단순 언급 수준으로 강령 입장 전달 없음.

정당 편향 요약

- 가장 정확한 표현: 더불어민주당 (점수 +2) — 정책 공약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됨
- 가장 강한 왜곡: 국민의힘 (점수 -2) — 민주당의 공격 발언 중심 보도로 PPP 강령 입장 왜곡
- 0으로부터의 평균 편차: 0.8
- 결론: 이 방송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입장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국민의힘의 정책 입장은 민주당의 공격 발언과 당내 갈등 중심으로 보도하여 PPP 강령 입장을 체계적으로 왜곡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구체적 정책 공약 없이 "부동산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민주당 측 공격 발언만 인용한 것은 PPP 강령 입장의 명백한 왜곡이다.

좌우 전체 경향

경향 점수: +1.8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양수 = 좌파 우호, 음수 = 우파 우호, 0.0 = 균형)

분류: 좌파 우호적

근거: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PPP 인접) 유죄 판결을 방송 첫 25분에 집중 보도하고 '봐주기 수사' 프레임으로 전 정권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DP)의 자주 국방 발언은 비판 없이 전달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 공약은 상세히 보도했다. 의제 설정, 프레이밍, 발언 시간 배분 모두에서 현 집권 여당(DP)에 유리한 방향성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다만 국제·경제·사회 아이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져 '강한 좌파 우호'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2 — 방송 정보 및 주제 틀

방송 기본 정보

- 제목: KBS 9시 뉴스
- 날짜(파일명 기준): 특정 날짜 미기재 (내용상 2025년 중반 추정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 준비 국면, 미-이란 전쟁 상황 언급)
- 길이(트랜스크립트 추정): 약 43분
- 진행자/기자: 앵커(이름 미기재),
배지현·이화진·김우준·박섭빈·정해주·진선민·이지은·송수진·김지숙·임종빈·김지석·안다영·유재현·전현욱·송금한·김준범·이수민·박효빈·원동의·김민혁·손서영·김요경·한솔·황다의 기자
- 인터뷰 대상자:

인물	직함	정당/소속	정치적 스펙트럼
항소심 재판부 (음성)	서울고등 법원 재판장	사법부	중립(사법)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변호인	PPP 인접	우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DP	중도-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인	무소속(피의자)	중립(피의자)
민주당 의원(청문회)	국회의원	DP	중도-좌
국민의힘 의원(청문회)	국회의원	PPP	우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DP	중도-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	PPP	우파
증권사 애널리스트 (익명)	시장 전문가	민간	중립
비만 치료 전문의 (익명)	의사	민간	중립
시민 인터뷰 다수	일반 시민	무소속	다양

주요 주제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적절성 논란, 지방선거 준비 동향, 미-이란 전쟁 및 국제 정세, 코스피 최고치 경신, 비만 치료제 오남용, 노동 계약 개선, 대중교통 대책 등 다수 아이টে을 다룬 종합 뉴스.

균형 잡힌 방송을 위해 필요한 관점

- [A] 항소심 유죄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한계 — 공동정범 인정 기준의 법학적 쟁점
- [B] 변호인단의 상고 이유 및 무죄 주장의 구체적 논거
- [C] 검찰 수사 지연의 구조적 원인 — 단순 '봐주기'인지 법리적 난점인지
- [D] 특검 수사의 정치적 맥락 — 현 정권 하 특검 운영의 공정성
- [E]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대북 송금 등)와의 형평성 비교
- [F]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묵시적 청탁' 법리 —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
- [G]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책 공약 구체적 내용
- [H] 미-이란 전쟁의 이란 측 입장 및 국제법적 쟁점
- [I] 비만 치료제 오남용 문제에서 제약사·의료계의 입장
- [J] 코스피 상승의 거품 논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

각 관점 처리 여부 검토

[A] 부분 처리

시각: 00:45-03:45 — 인용: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 평가: 재판부 논리는 상세히 전달했으나 반대 법리 전문가 의견 없음.

[B] 처리됨

시각: 10:20 — 인용: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평가: 변호인 입장이 짧게 포함되었으나 심층 논거 없음.

[C] 부분 처리

시각: 03:48-05:22 — 인용: "검찰은 이 의혹을 4년 넘게 끌다가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평가: '봐주기 수사' 프레임으로만 제시, 법리적 난점 설명 없음.

[D] 미처리

시각: 해당 없음 — 인용: 없음 — 평가: 현 정권 하 특검 운영의 공정성 문제 전혀 다루지 않음.

[E] 미처리

시각: 해당 없음 — 인용: 없음 — 평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의 형평성 비교 완전 누락.

[F] 부분 처리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시각: 07:23–08:30 — 인용: "묵시적인 청탁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 평가: 재판부 논리만 전달, 법학자 반론 없음.

[G] 미처리

시각: 30:47–31:32 — 인용: "당지도부측 인사 없는 자체선대위를 꾸렸습니다." — 평가: 국민의힘 후보 정책 공약 내용 거의 없고 당내 갈등 중심 보도.

[H] 부분 처리

시각: 18:19–21:28 — 인용: "협상 교착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의 파괴적인 습관에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 평가: 이란 측 주장 인용했으나 국제법 전문가 분석 없음.

[I] 미처리

시각: 해당 없음 — 인용: 없음 — 평가: 제약사·의료계 입장 전혀 없음.

[J] 부분 처리

시각: 13:50–14:07 — 인용: "매도세 같은 것들이 가속화돼서 급변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리스크들도 같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 평가: 리스크 언급했으나 낙관론과 비관론 균형 미흡.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3 — 15개 기준 세부 분석

하드팩트 — 계량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9가지 기법

1. 전문가 선택

6/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6/10

정의: 누가 전문가로 발언하는가?

전문가 1: 항소심 재판부 (음성 인용)

시각: 01:27–01:33, 02:34–02:38, 08:02–08:08 등

발언: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분류: 사법부 — 해당 사건 판결 주체

이해충돌 없음: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 기관이나, 판결문 인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필요.

반론 부재: 형사법 전문 교수의 판결 비판적 분석 없음.

출처 심층 검토:

(a) **재원:** 국가 재정 — 독립적 사법부

(b) **위임:** 해당 사건 판결 권한 보유 — 독립성 원칙상 적합

(c) **신뢰도 매트릭스 (출처 신호등, 6차원, 각 -2~+2):**

D1 이해충돌: +1 — 사법부는 독립적이나 현 정치 환경에서 완전한 독립 보장 불확실

D2 개인적 위험: +2 — 판결 내용에 대한 개인적 위험 없음

D3 전문성: +2 — 해당 사건 판결 권한 보유

D4 의견 일관성: +1 — 1심과 다른 판단이나 법리적 근거 제시

D5 감정화 대 데이터: +1 — 법리적 근거 제시했으나 일부 도덕적 질타 포함

D6 출처 단계: +2 — 1차 출처 (판결문 직접 인용)

총점: +9 → 출처 신호등: 녹색

(d) 판결문 인용이 유죄 부분에 집중되고 무죄 부분(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등)은 간략히 처리됨 → 선택적 인용 문제.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전문가 2: 증권사 애널리스트 (익명)

시각: 11:31–11:37, 11:57–12:02

발언: "반도체는 원자점조. 미국 테크업체들의 실보다 기본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 지역들에 대한 기대는 다리할 수 있다."

분류: 민간 증권사 소속 — 주식 시장 상승 시 수익 구조

이해충돌: 증권사는 시장 활성화로 수익을 얻는 구조적 이해충돌 존재.

반론 부재: 시장 거품 경고 전문가 없음.

출처 심층 검토:

(a) **재원:** 민간 증권사 — 시장 활성화 이해관계

(b) **위임:** 시장 분석 — 낙관적 전망 편향 가능성

(c) **신뢰도 매트릭스:**

D1 이해충돌: -1 — 증권사는 시장 상승 시 수익

D2 개인적 위험: 0 — 낙관론 발언으로 개인적 위험 없음

D3 전문성: +1 — 시장 분석 전문가

D4 의견 일관성: 0 — 확인 불가

D5 감정화 대 데이터: +1 — 데이터 기반이나 낙관 편향

D6 출처 단계: +1 — 직접 발언

총점: +2 → 출처 신호등: 황색

(d) 낙관적 전망만 제시하고 구조적 리스크 경고 전문가 없음 → 선택적 전문가 구성.

누락된 전문가 그룹:

- 형사법 전문 교수 (공동정범 법리 분석)
- 독립적 사법 감시 단체 (특검 공정성 평가)
- 비관적 시장 전망 전문가 (코스피 거품 논란)

출처 신뢰도 개요:

출처	D1	D2	D3	D4	D5	D6	Total	신호
항소심 재판부 (음성 인용)	+1	+2	+2	+1	+1	+2	+9	녹색
증권사 애널리스트 (익명)	-1	0	+1	0	+1	+1	+2	황색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요약 (매트릭스 결과):

- 항소심 재판부: 녹색(+9) — 그러나 선택적 인용 문제
- 증권사 애널리스트: 황색(+2) — 구조적 이해충돌, 낙관 편향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2. 출처 선택							7/10		
1	2	3	4	5	6	7	8	9	10

1차 출처 없는 주장 = 벌점 (소문 검증)

총점: 7/10

정의: 어떤 출처가 인용되는가? 다양하고 독립적인가?

출처 1: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시각: 01:27-01:33 등 다수 — 인용: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뿐만 아니라"

- (a) **재원:** 국가 재정 — 독립 사법부
 - (b) **구조적 이해충돌:** 없음 (사법부 독립 원칙)
 - (c) **누락된 반론 출처:** 형사법 전문 교수의 판결 비판적 분석
- 신호등: 녹색 (출처 자체는 신뢰할 수 있으나 선택적 인용 문제)

출처 2: 특검 (음성 인용)

시각: 02:34-02:38 — 인용: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 (a) **재원:** 국가 재정 — 현 정권 하 운영
 - (b) **구조적 이해충돌:** 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운영되는 특검이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는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
 - (c) **누락된 반론 출처:** 특검 공정성 비판 법학자
- 신호등: 황색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

출처 3: CNN (미-이란 관련)

시각: 17:05-17:10 — 인용: "CNN은 이번 만찬에 승계서열 1위부터 18위까지 인사 가운데 모두 13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a) **재원:** 민간 미국 언론사
 - (b) **구조적 이해충돌:** 미국 관점의 보도 편향 가능성
 - (c) **누락된 반론 출처:** 이란 측 또는 중립적 국제 언론 출처
- 신호등: 황색 (단일 출처 의존)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요약: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서 재판부와 특검 등 유죄 방향의 출처에 집중하고, 변호인 측과 독립적 법학자 출처를 체계적으로 배제하여 출처 다양성 의무를 위반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3. 발언 시간 배분									6/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6/10

정의: 다양한 입장 간 발언 시간 배분.

추정 발언 시간:

- 김건희 여사 유죄 관련 보도 (재판부·검찰·특검 입장): 약 10분 (전체의 약 23%)
- 김건희 여사 변호인 반론: 약 0.5분 (전체의 약 1%)
- 민주당 관련 보도 (정원호 후보,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민주당 의원): 약 8분 (전체의 약 19%)
- 국민의힘 관련 보도 (오세훈 후보,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 약 3분 (전체의 약 7%)
- 국제·경제·사회 뉴스: 약 22분 (전체의 약 51%)
- 앵커 진행: 약 5분 (전체의 약 12%)

요약: 김건희 여사 유죄 관련 보도와 변호인 반론의 시간 배분이 약 20:1로 극단적으로 불균형하며, 지방선거 보도에서도 민주당 후보 관련 시간이 국민의힘 후보의 약 2.7배에 달해 방송법 제6조의 균형 의무에 위배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4. 선택적 생략								8/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8/10

정의: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누락 1:

맥락: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사건)와 김건희 여사 판결의 형평성 비교
 관련 시각: 00:03–10:40 (김건희 판결 보도 전체)

효과: 현 집권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전 정권 인사만 사법 처리'라는 인상을 형성. 34:12에서 대북 송금 청문회를 다루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는 최소화함.

누락 2:

맥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세훈)의 구체적 정책 공약 내용
 관련 시각: 29:45–31:32 (지방선거 보도)

효과: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공약은 상세히 보도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자 허위선동으로 갈등만 키운다"는 민주당의 공격 발언만 인용하고 오세훈 후보 자신의 공약 내용은 거의 없음.

누락 3:

맥락: 현 정권 하 특검 수사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
 관련 시각: 03:48–05:22 (검찰 수사 비판 보도)

효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상세히 비판하면서,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운영되는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아 일방적 비판 구도 형성.

요약: 이 방송은 전 정권 인사(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는 상세히 보도하면서 현 집권자의 사법 리스크와 야당 후보의 정책 공약을 체계적으로 누락하여 방송법 제6조의 균형 의무를 위반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누락된 목소리

- 형사법 전문 교수: 공동정범 인정 기준의 법리적 쟁점과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을 분석했을 것
- PPP 공식 대변인: 판결에 대한 야당의 공식 입장과 정치적 사법화 우려를 전달했을 것
- 이재명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대북 송금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을 것
- 독립적 사법 감시 단체: 특검 수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했을 것
- 제약업계 관계자: 비만 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 논란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전달했을 것
- 에너지 경제 전문가: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했을 것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을 것
- 노동법 전문가: 364일 계약 관행의 법적 허점과 민간 부문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것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5. 숫자 조작									3/10
1	2	3	4	5	6	7	8	9	10

완전한 수치에는 절대값, 비율(%), 추세가 포함됨

총점: 3/10
정의: 통계의 선택적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

발견 1:

시각: 00:39-00:42

숫자: "일심 재판의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두 배 넘게 형량이 무거워진 셈입니다."

누락된 맥락: 1심과 2심의 유죄 인정 혐의 범위가 다름(2심에서 추가 조작 혐의 추가). 단순 형량 비교는 혐의 범위 차이를 무시한 오해 유발 가능성.

효과: '두 배 넘게'라는 표현이 동일 혐의에 대한 형량 증가처럼 인식되어 판결의 가혹성을 과장할 수 있음.

요약: 숫자 조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1심과 2심의 혐의 범위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형량만 비교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



6. 접촉에 의한 오염									5/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5/10

정의: 부정적 집단/아이디어와의 연관을 통한 신뢰 훼손.

연관 1:

시각: 05:07-05:11

인용: "특검 수사에선 김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 메시지도 확인됐습니다."

기법: 김건희 여사를 법무부장관과의 부적절한 소통으로 연결하여 수사 개입 의혹을 암시.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나 맥락 없이 '수상한 연관'만 제시.

효과: 시청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형성하나, 이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혹 수준.

연관 2:

시각: 00:26-00:28

인용: "통일교 금품 수수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

기법: 첫 소개에서 '통일교'와 '주가 조작'을 동시에 언급하여 두 혐의를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로 묶음.

효과: 각각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혐의들을 하나의 범죄적 인물상으로 통합하는 연좌 효과.

연관 체인 (해당 없음): 이 방송에서 명시적 연좌 체인은 확인되지 않음.

요약: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를 '통일교 + 주가 조작 + 법무부장관 문자'로 연결하는 복합적 부정 연관 구조를 형성하여, 개별 혐의의 독립적 법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7. 타이밍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정보의 전략적 배치 (시작/중간/끝).

발견 1:

위치: 00:03–10:40 (방송 시작 ~ 약 25%)

내용: 김건희 여사 항소심 유죄 판결 — 4개 리포트 연속 편성

타이밍 효과: 방송 첫 25분을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로 채움으로써 시청자의 첫인상과 기억에 가장 강하게 각인. 심리학적으로 초두 효과(primacy effect)를 활용한 배치.

발견 2:

위치: 34:12–35:58 (방송 약 80%)

내용: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를 부인

타이밍 효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청문회 내용을 방송 후반부에 배치하고, 김성태 회장의 부인 발언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최소화.

발견 3:

위치: 05:29–06:59 (방송 약 13%)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부인 발언 재방송

타이밍 효과: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부인 발언을 배치하여 '거짓말한 전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강화. 이는 현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발언을 현재 판결과 연결하는 타이밍 조작.

요약: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을 방송 첫 25분에 집중 배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후반부에 최소화하여 배치하는 전략적 타이밍 구조를 보인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8. 선택적 분노									6/10
1	2	3	4	5	6	7	8	9	10

분노 = 편향. 선택적 분노는 발견을 강화함. 점수 = 분노 수준 (0-5) + 선택성 (0-5)

총점: 6/10
정의: 특정 입장에서는 분노하지만 비교 가능한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음.
방법론적 원칙 (v2.2): 모든 평가 전에 촉발 사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반응은 비교 가능한 촉발 사건이 다른 입장에서 유사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발견 1:

시각: 03:48-05:22

촉발 사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

반응: "검찰은 이 의혹을 4년 넘게 끌다가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비판적 보도 + 별도 리포트 편성

비교: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대북 송금 등)에 대한 보도(34:12-35:58)에서는 "검찰의 이대통령에 대한 공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민주당 의원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비판 없음.

비대칭성: 전 정권 하 검찰의 '봐주기'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 정권 하 검찰의 '공작' 주장은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만 처리하고 독립적 비판 없음. 촉발 사건의 성격(검찰 수사 적절성)은 동일하나 반응이 현저히 다름.

발견 2:

시각: 27:35-27:42

촉발 사건: 공공기관의 364일 계약 관행

반응: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라는 노조 측 발언을 반론 없이 방송.

비교: 기업의 유사한 관행에 대한 보도에서 경영계 입장을 동등하게 다루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안에서는 노동 측 입장만 강하게 부각됨.

비대칭성: 공공기관 관행에 대한 강한 비판적 표현을 반론 없이 방송하는 것은 선택적 분노의 패턴을 보임. 다만 이 사안은 정치적 편향보다는 노동 이슈 편향으로 분류됨.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요약: 이 방송은 전 정권 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적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현 정권 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판적 시각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적 분노 패턴을 보인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9. 완전성									6/10
1	2	3	4	5	6	7	8	9	10

김건희 여사 사건은 2019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된 의혹이 약 7년 만에 항소심 유죄로 귀결된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 처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보수 진영은 정치적 사법화를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대북 송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여야 모두 사법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구도다.

다뤄진 관점의 비율

반전: 원래 값은 커버리지 측정(높을수록 좋음). 편차로 표시(높을수록 큰 공백).



소프트팩트 — 6가지 정성적 기법

10. 틀 설정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주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틀 지우는가?

발견 1:

시각: 00:03–00:12

인용: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이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작: 첫 문장부터 '더 무거운 형량'을 강조하며 유죄 확정 프레임으로 시작.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 미확정 판결임에도 확정적 어조 사용.

왜 문제인가: 시청자에게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인식시켜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상고심 결과에 대한 열린 시각을 차단함.

발견 2:

시각: 03:48–03:56

인용: "검찰은 이 의혹을 4년 넘게 끌다가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작: '끌다가'라는 표현이 검찰의 의도적 지연을 암시하는 부정적 프레임 설정. 수사 지연의 법리적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음.

왜 문제인가: 검찰 수사 지연을 '봐주기'로 단정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시청자가 검찰의 법리적 판단 과정을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박탈함.

발견 3:

시각: 05:16–05:22

인용: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조작: '봐주기 수사'라는 표현을 기자가 직접 사용하여 검찰 수사를 단정적으로 규정. 이는 사실 보도가 아닌 의견 표명.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왜 문제인가: 공영방송 기자가 '봐주기'라는 가치 판단적 표현을 사실처럼 사용함으로써 방송법 제6조의 공정성 의무를 위반함.

요약: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 판결을 '유죄 확정 + 검찰 봐주기'라는 이중 프레임으로 일관되게 설정하여, 상고심 가능성과 검찰의 법리적 판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1. 단어 선택과 용어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가? 어떤 함의가 설정되는가?

발견 1:

시각: 05:16

인용: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욕을"

조작: '봐주기'는 의도적 편의 제공을 함의하는 강한 부정적 표현. 중립적 대안은 "수사 지연" 또는 "소극적 수사".

왜 문제인가: 기자가 사실 보도 맥락에서 가치 판단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함.

발견 2:

시각: 04:02-04:04

인용: "김건희 여사가 자금줄로 지목됐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조작: '자금줄'이라는 표현은 범죄 조직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강한 부정적 함의를 지님. 중립적 대안은 "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왜 문제인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자금줄'이라는 범죄적 함의의 표현을 사용하여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함.

발견 3:

시각: 27:35-27:42

인용: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 기업의 꿈을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작: '노동 도둑질', '악덕 기업', '꿈수', '부끄러운'이라는 극단적 표현들이 노동조합 관계자 발언으로 인용되었으나, 반론 없이 그대로 방송됨.

왜 문제인가: 강한 감정적 표현을 반론 없이 방송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입장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고 일방적 인상을 형성함.

요약: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서 '봐주기', '자금줄' 등 강한 부정적 함의의 표현을 사실 보도 맥락에서 사용하여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노동 관련 보도에서도 극단적 표현을 반론 없이 방송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2. 진행자 행동								4/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4/10

정의: 질문, 개입, 공감 표현의 비대칭성.

방법론적 원칙 (v2.2): 모든 평가 전에 촉발 사건을 문서화해야 한다. 개입은 다른 게스트에게 유사한 촉발 사건이 유사한 개입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대칭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발견 1:

시각: 10:20–10:31

촉발 사건: 변호인단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함.

인용 (앵커): 앵커는 변호인 발언 후 별도 논평 없이 다음 아이템으로 전환.

비교: 재판부의 유죄 판단 인용 시(00:45–03:45)에는 상세한 배경 설명과 추가 리포트 3개를 연속 편성.

비대칭성: 유죄 판단에는 3개 리포트(약 10분)를 할애한 반면, 변호인 반론에는 약 30초만 할당. 촉발 사건의 성격(유죄 vs. 무죄 주장)에 따라 편집 분량이 현저히 다름.

발견 2:

시각: 29:45–29:51

촉발 사건: 민주당 후보(정원호)의 청년 창업 지원 공약 발표.

인용 (앵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청년과 소상공인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비교: 국민의힘 후보(오세훈) 관련 보도(30:31)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당내 갈등 프레임으로 시작.

비대칭성: 민주당 후보는 정책 공약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갈등 중심으로 소개하는 편집 비대칭 확인됨.

요약: 진행자의 직접적 개입 비대칭은 제한적이나, 편집 분량 배분과 도입 프레임에서 민주당 우호적 비대칭이 확인된다. 다만 이는 진행자 개인의 행동보다 편집 방침의 문제로 판단됨.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3. 질문 비대칭										5/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5/10

정의: 다른 인물에게 다르게 강하거나 약한 질문.

비대칭 1:

대상 A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34:51–34:58: "이재명 지사의 300만 달러 방법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왜 대납했습니까?" — 강한 질문

대상 B (이재명 대통령 관련), 36:04–37:35: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며 추가 질문 없음 — 매우 약한 질문

비교: 김성태 회장에게는 대납 이유를 직접 추궁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비판적 검토 없이 전달함.

비대칭 2:

대상 A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29:45–29:51: 민주당 측의 "부동산 혼란을 키운 장본인이자 허위선동으로 갈등만 키운다"는 공격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오세훈 측 반론 없음.

대상 B (민주당 정원호 후보), 29:09–29:43: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을 상세히 소개하며 비판적 질문 없음.

비교: 야당 후보에게는 여당의 공격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여당 후보에게는 공약을 우호적으로 소개하는 비대칭 구조.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에게는 비판적 질문이 거의 없는 반면, 야당 인사와 전 정권 관련 인물에게는 강한 추궁이 이루어지는 질문 비대칭이 확인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4. 허위 균형									3/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3/10

정의: 실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균형 연출.

발견 1:

시각: 35:42-35:53

구성: "민주당은 검찰의 이대통령에 대한 공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확인했다고 맞습니다."

분석: 여야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나란히 제시하여 표면적 균형을 연출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주장(검찰 공작)에 더 많은 보도 시간과 맥락을 할당하고 국민의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처리함. 이는 허위 균형의 전형적 패턴.

요약: 이 방송에서 허위 균형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균형 자체를 포기한 일방적 보도가 더 지배적인 문제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15. 의제 설정							7/10		
1	2	3	4	5	6	7	8	9	10

총점: 7/10

정의: 무엇이 정상/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의제에 오르지 않는가?

발견 1:

설정된 의제 요소: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 = 전 정권의 부패와 검찰 유착의 증거

시각: 00:03-05:22 — 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욕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대안 의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쟁점, 대법원 상고심 결과의 불확실성, 사법 독립성 문제

발견 2:

설정된 의제 요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 발언 = 합리적 주권 외교

시각: 36:04-37:35 — 근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의제: 한미동맹 약화 우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구체적 내용, 야당의 안보 우려

발견 3:

설정된 의제 요소: 지방선거 = 민주당의 정책 공약 경쟁

시각: 28:53-30:28 — 근거: 민주당 후보 공약 상세 보도 vs. 국민의힘 후보 당내 갈등 중심 보도

대안 의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구체적 정책 공약, 지방선거의 실질적 정책 쟁점

요약: 이 방송은 '전 정권 부패 + 현 정권 합리성'이라는 의제를 당연한 전제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관점(현 정권 사법 리스크, 야당 정책 공약)을 의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4 — 종합 평가

15개 기준 종합 평가

개별 점수 — 전체 15개 기준

번호	기준	Score	등급
1	전문가 선택	6/10	상당한 불균형
2	출처 선택	7/10	뚜렷한 불균형
3	발언 시간 배분	6/10	상당한 불균형
4	선택적 생략	8/10	뚜렷한 불균형
5	숫자 조작	3/10	경미한 불균형
6	접촉에 의한 오염	5/10	상당한 불균형
7	타이밍	7/10	뚜렷한 불균형
8	선택적 분노	6/10	상당한 불균형
9	완전성	6/10	상당한 불균형
10	틀 설정	7/10	뚜렷한 불균형
11	단어 선택과 용어	7/10	뚜렷한 불균형
12	진행자 행동	4/10	경미한 불균형
13	질문 비대칭	5/10	상당한 불균형
14	허위 균형	3/10	경미한 불균형
15	의제 설정	7/10	뚜렷한 불균형

하드팩트 점수 (1-8)

5.5/10

상당한 불균형

소프트팩트 점수 (9-14)

6.0/10

상당한 불균형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종합 점수

5.8/10

상당한 불균형

Hardfacts와 Softfacts 평균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범례 — 점수 정의

기준별 개별 점수 (0-10)

0	소견 없음	관련 이상 사항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1-2	약한 소견	균형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미한 이상.
3-4	경미~중간 소견	인식 가능한 경향; 영향 관련성 낮음~중간.
5	영향이 있는 중간 소견	시청자의 의견 형성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불균형.
6	중요 소견 (임계값)	6점 이상은 '중요 소견'으로 분류됩니다.
7	중요 소견	명확하고 잘 문서화된 불균형, 뚜렷한 영향 관련성.
8-9	심각한 소견	뚜렷한 불균형; 이 기준에서 여러 문서화된 개별 소견.
10	최대 심각도	이 기준에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불균형.

종합 편차 지수 — 해석 범위

0.0 - 2.5	특이사항 없음	유의미한 패턴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공정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2.6 - 4.0	경미한 불균형	개별적 이상; 통계적으로 보이거나 허용 범위 내.
4.1 - 6.0	중대한 불균형	여러 중요 소견; 관점 다양성의 관련 있는 손상.
6.1 - 8.0	공정성 기준으로부터의 심각한 이탈. 높은 이탈도	방송 전반에 걸친 뚜렷한 패턴; 높은 영향 관련성.
8.1 - 10	근본적인 체계적 편향. 매우 높은 편향도	거의 모든 기준에서 최대 심각도;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정당 편향 (-5 ~ +5)

-5~-3	강하게 불리	정당이 프레이밍, 방송 시간 또는 발표에서 현저히 과소 대표됨.
-2~-1	약간 불리	인식 가능하지만 경미한 불이익.
0	중립	감지 가능한 편애나 불이익 없음.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1~+2	약간 유리	인식 가능하지만 경미한 편애.
+3~+5	강하게 유리	정당이 프레이밍, 방송 시간 또는 발표에서 현저히 과대 대표됨.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장 5 — 법적 분류 (방송법 제6조)

방송법 제6조에 따른 평가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며,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위반 1:

규범: 방송법 제6조 제1항 (공정성 의무)

위반 내용: 기자가 사실 보도 맥락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가치 판단적 표현을 직접 사용함.

근거: 시각 05:16-05:22 — 인용: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욕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평가: '봐주기 수사'는 의도적 편의를 제공을 단정하는 표현으로, 공영방송 기자가 사실 보도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다. 중립적 표현인 "수사 지연" 또는 "소극적 수사"를 사용했어야 한다.

위반 2:

규범: 방송법 제6조 제2항 (균형성 의무)

위반 내용: 김건희 여사 유죄 판결 보도에서 유죄 방향 보도에 약 10분을 할당하면서 변호인 반론에는 약 30초만 배정하는 극단적 시간 불균형.

근거: 시각 00:03-10:40 (유죄 방향 4개 리포트) vs. 10:20-10:31 (변호인 반론 약 30초)

평가: 방송법 제6조 제2항은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죄 방향과 무죄 주장의 시간 배분이 약 20:1에 달하는 것은 이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위반 3:

규범: 방송법 제6조 제2항 (균형성 의무)

위반 내용: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대북 송금 의혹)와 김건희 여사 판결의 형평성 비교를 완전히 누락하고, 현 정권 특검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지 않음.

근거: 시각 00:03-10:40 (김건희 판결 집중 보도) —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보도 없음.

평가: 전 정권 인사의 사법 처리는 상세히 보도하면서 현 집권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누락하는 것은 방송법 제6조 제2항의 균형성 의무를 위반하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방송법 제6조 종합 평가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이 KBS 9시 뉴스는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 의무와 제2항의 균형성 의무를 복수의 지점에서 위반했다. 기자가 '봐주기 수사'라는 가치 판단적 표현을 사실 보도 맥락에서 직접 사용한 것은 공정성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유죄 방향 보도와 변호인 반론의 극단적 시간 불균형(약 20:1)은 균형성 의무 위반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의 형평성 비교를 완전히 누락하고 현 정권 특검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의무에도 위배된다. 다만 국제·경제·사회 아이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보도가 이루어져 방송 전체가 극단적 편향 수준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심층 검토 (의무 — 모든 인용된 전문 기관/NGO/자문 기관)

이 방송에서 인용된 주요 기관/출처에 대한 심층 검토:

1.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1. 재원: 국가 재정 — 독립 사법부
2. 위임: 해당 사건 판결 권한 보유 — 중립성 원칙상 적합
3. 이해충돌: 없음 (사법부 독립 원칙) — 다만 현 정치 환경에서 사법부 독립성 완전 보장 불확실
4. 신뢰도 매트릭스: D1(+1) D2(+2) D3(+2) D4(+1) D5(+1) D6(+2) → 총점 +9 → 녹색
5. 반론 출처: 형사법 전문 교수의 공동정범 법리 비판적 분석 없음

2. 특검 (2차 종합 특검)

1. 재원: 국가 재정 — 현 민주당 정부 하 운영
2. 위임: 전 정권 인사 수사 — 현 정권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3. 이해충돌: 현 집권 여당(DP)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낼 구조적 유인 존재
4. 신뢰도 매트릭스: D1(-1) D2(+1) D3(+2) D4(0) D5(+1) D6(+1) → 총점 +4 → 황색
5. 반론 출처: 특검 공정성 비판 법학자 또는 독립적 사법 감시 단체 없음

3. CNN (미-이란 관련 보도)

1. 재원: 민간 미국 언론사 — 미국 관점 편향 가능성
2. 위임: 미국 내 정치 보도 — 미국 정부 입장에 우호적 편향 가능성
3. 이해충돌: 미국 관점의 보도 편향 — 이란 측 입장 과소 대표 가능성
4. 신뢰도 매트릭스: D1(-1) D2(0) D3(+1) D4(0) D5(+1) D6(+1) → 총점 +2 → 황색
5. 반론 출처: 이란 측 또는 중립적 국제 언론 출처 없음

중요: '인정받은'은 사실적 자격이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회적 귀속이다.

법적 및 방법론적 참고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사실 인정이 아님

제시된 결과는 개인, 편집팀 또는 방송에 대한 사실적 결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운영화의 산물이며, 개인적 책임의 인정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아님

집계된 이탈 지수는 방송법 제6조에 따른 법적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방송이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관할 당국(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아님

통계적 상관관계는 인과 관계나 편집 의도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 값은 주제 선택, 뉴스 환경, 정치적 논란 또는 형식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 판단이 아님

분석은 방송의 관찰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측정합니다. 7점은 중대한 불균형이 감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편집팀이 의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은 동기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주장하지 않습니다.

휴리스틱 비교 도구

이 지수는 수천 개의 방송에 걸친 비교 패턴 인식에 기여하며, 개별 세그먼트의 정밀한 메트릭 측정이 아닙니다. 임계값은 휴리스틱 방향 설정에 기여하며, 엄격한 법적 자격 부여가 아닙니다.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부록 1: 국내 방송법

법적 근거 한국 — KBS / MBC

법률

Broadcasting Act (방송법, Gesetz 번호 6139 vom 28.01.2000, zuletzt geändert 2025)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Artikel 21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1987) garantiert Meinungs- und Pressefreiheit. Absatz 3: Standards für Nachrichtendienste und Rundfunkeinrichtungen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관련 조항

- Art. 3 (방송의 자유): Freiheit der Programmgestaltung wird garantiert. Niemand darf die Programmgestaltung regulieren oder beeinflussen, es sei denn gemäss den Bedingungen dieses Gesetzes.
- Art. 5 (방송의 공적 책임): Öffentliche Verantwortung des Rundfunks. Rundfunk muss d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entsprechen.
- Art. 6 Abs. 1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muss fair und objektiv sein.)

- Art. 6 Abs. 2: Rundfunk darf in seiner Programmgestaltung nicht aufgrund von Geschlecht, Alter, Beruf, Religion, Überzeugung, Schicht, Region oder Rasse diskriminieren.
- Art. 6 Abs. 3: Rundfunk muss die ethischen und emotionalen Empfindungen des Volkes respektieren und zum Schutz der Grundrechte sowie zur Förderung internationaler Freundschaft beitragen.
- Art. 6 (weitere Absätze): Pflicht zur Förderung von Meinungsvielfalt und ausgewogenen Darstellung verschiedener Standpunkte bei kontroversen Themen.
- Art. 43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Gründung der Korea Broadcasting Corporation (KBS) zur Schaffung einer fairen und gesunden Rundfunkkultur.
- Art. 44: Öffentliche Verantwortung von KBS.

시행규정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s)

- Art.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Fairness/Objektivität der Berichterstattung — detaillierte Regeln zur Nachrichtenberichterstattung.
- Art. 14: Objektivität bei Nachrichtenberichten.
- Art. 100: Sanktionsstufen: Korrekturempfehlung → Warnung → Busse → Aussetzung der Sendegenehmigung.

감독기관

- KMCC / KCC (방송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Rundfunkpolitik, Lizenzvergabe, Untersuchung und Sanktionierung von Verstößen. Reform 2025: Umbenannt, neue BMCC als unabhängiger Puffer zwischen Politik und Rundfunk-Governance.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 KCS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nhaltliche Aufsicht. Prüft, ob Rundfunkinhalte Fairness (공정성), öffentliches Interesse (공익성) und öffentliche Verantwortung wahren (gemäss Art. 32). 9 Kommissare, vom Präsidenten ernannt (6 Regierungspartei, 3 Opposition).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Beschwerdeweg für Bürger. Korrekturanpruch, Gendarstellung, Nachberichterstattung. Einigung ist rechtsverbindlich.

공영방송사

Sender	Rechtsform	Finanzierung
KBS (한국방송공사)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	Rundfunkgebühren + Staatsmittel + Werbung (KBS-2)
MBC (문화방송)	AG, 70%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Primär Werbung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Öffentliche Körperschaft	Lehrbuchverkauf + Werb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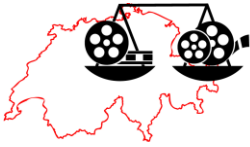
이의제기 절차

1. KCSC-Deliberationsverfahren (nachträgliche Prüfung)
2. Viewers' Complaint Settlement Committee (Art. 35, bei den Sendern)
3.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Korrektur, Gendarstellung)
4. Allgemeine Gerichte

비교 CH — KR

Aspekt	Schweiz (Art. 4 RTVG)	Südkorea (Art. 6 방송법)
Sachgerechtigkeit	Gesetzlich (Art. 4 Abs. 2)	Gesetzlich (Art. 6 Abs. 1: 공정하고 객관적)
Meinungsvielfalt	Gesetzlich (Art. 4 Abs. 4)	Gesetzlich (Art. 6: verschiedene Standpunkte)
Unparteilichkeit	Abgeleitet	Gesetzlich (공정성 = Fairness)
Politische Balance	Abgeleitet	Implizit (Meinungsvielfalt)
Unabhängige Beschwerdeinstanz	UBI (gesetzlich)	KCSC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haltsaufsicht	BAKOM/UBI	KCSC
Strukturelles Problem	Keine direkte politische Kontrolle	Regierungswechsel → Kaderwechsel in KBS/MBC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부록 2: 과학적 참고문헌

참고문헌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5.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Free Pres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ög – Forschungszentrum Öffentlichkeit und Gesellschaft (2024). *Jahrbuch Qualität der Medien 2024*. Schwabe.
- Gilardi, F., Alizadeh, M. & Kubli, M. (2023). ChatGPT outperforms crowd workers for text-annotation tasks. *PNAS*, 120(30).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lly, S. et al. (2022). Chapel Hill Expert Survey trend file, 1999–2019. *Electoral Studies*, 75, 102420.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Sage.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Shoemaker, P. J. & Vos, T. P. (2009). *Gatekeeping theory*. Routledge.
- SVFAB (2026). *Methodenbericht v4.1: Zählbare Kriterien und Multi-Modell-Kreuzvalidierung*.
- Törnberg, P. (2023). ChatGPT-4 outperforms experts and crowd workers in annotating political Twitter messages. arXiv:2304.06588.

SVFAB Working Papers

- Schläpfer, D. (2026). Systematic AI-Assisted Analysis of Public Broadcaster Impartiality: A Scalabl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Measuring Structural Bias in Public Service Media. [SSRN 6688478](#)
- Schläpfer, D. (2026). Measuring Editorial Noise: A Retrospective Suppression Index for Public Broadcasting Content Analysis. [SSRN 6733280](#)
- Schläpfer, D. (2026). Source Traffic Light: A Six-Dimensional Credibility Framework for Systematic Source Assessment in Public Service Media. [SSRN 6733880](#)

David Schläpfer — ORCID: 0009-0000-5671-9266

SVFAB — 스위스 균형보도 협회 | 사서함, 8021 취리히 1 | www.svfab.ch | kontakt@svfab.ch | 방법론 보고서 2026년 3월 |
변환기 3.5 (2026-05-29)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SVFAB 보고서 및 회원 가입

SVFAB.ch에서는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선적 건에 대한 보고서 생성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료 서비스).

저희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회원 가입과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www.SVFAB.ch | Kontakt@SVFAB.ch

은행 계좌: PostFinance – POFICHBE

IBAN: CH32 0900 0000 1675 6251 1

수취인: SVFAB, P.O. Box, CH-8021 Zurich 1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ae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SVFAB에서 다음 책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www.svfab.ch 또는 kontakt@svfab.ch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보도 자료 절반 공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불균형적인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취재진과 정보원 선정부터 시작하여 조작 기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어 누락, 프레임 설정, 시간적 프레임 설정, 연좌제, 감정적 이용, 맥락 제거 등 15가지 원칙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러한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해뿐 아니라 공감까지 이끌어냅니다.

선택 사양으로 트럼프 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오디오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뷰는 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본을 써놓은 무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론에 먹칠을 하는 셈입니다. 좋은 인용구가 잘못 편집되고, 정확한 발언이 잘못된 맥락에서 전달되며, 솔직한 답변이 자백처럼 포장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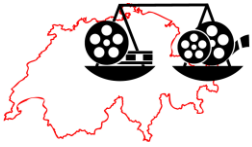
이 책은 언론 비평서가 아닙니다. 마이크 앞에 선 모든 사람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상자입니다.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터뷰의 본질, 가장 흔한 7가지 함정, 세 가지 기본 원칙(앵커링, 프레임링, 경계 설정), 1시간 만에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 몸짓과 목소리 사용법, 인터뷰가 잘못될 경우 대처법, 그리고 인터뷰 후 중요한 점까지 다룹니다.

정치인, 활동가, 기업가, 내부고발자 등 대중의 시선을 받는 모든 사람이 언론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준비, 참고, 후속 조치 및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를 위해.

회장: 다비드 Schlaepfer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



Schweizerischer Verein für ausgewogene Berichterstattung
Association suisse pour une information équilibrée
Associazione svizzera per un reporting equilibrato



당신은 세상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씌운 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조작 기술입니다.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당신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딱딱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재미있고, 직접적이며, 실생활 예시로 가득한 워크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프레임에 담는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프레임에 담는지,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프레임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정치, 미디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다양한 연습 문제와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스타일 있게 프레임을 활용하세요. 프레임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회장: 다비드 슬래퍼 / Schläpfer, David - **연락처:** kontakt@SVFAB.ch

주소: SVFAB, P.O. 박스, CH-8021 취리히 1 / SVFAB, Postfach, CH-8021 Zürich 1